

## 새로운 직종의 사서직 · 정보전문직의 부상

구본영\*

**문** 헌정보학은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학제적인 성격을 지닌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으로, 공통적으로 문헌·정보 유통과 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업무를 중심으로 문헌이란 도구에 수록된 자료를 가지고 서지적 통제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사서가 중심이 되어서 고객에게 봉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통적으로 사서직의 가치는 인문학적이고 민주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의 지혜를 증진시키고, 오락을 제공하며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지식과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사서직의 기능). 그런데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다양한 정보매체와 정보형태는 적절한 정보를 적자(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검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창출을 위한 정보전달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정보전문직의 기능).

정보사회가 성립되면서 문헌의 소장 여부와는 상관 없이 최신의 전문자료의 내용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계적인 검색을 고객 스스로가 어디에서나 접근하는 셀프서비스(self-service)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셀프서비스 사회에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사서는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보검색을 위한 이용자 교육과 지도를 담당해야하며, 원격이용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사서의 세부적인 주제지식과 정보기술(IT)이 더한층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으로서 정보전

문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공자들 업무의 대부분은, 주제지식과 IT 지식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술지원, 자료 분석 및 컨설팅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조사된 직종 외에 기타 직종으로서는 웹서퍼, 정보검색사, 야후나 한미르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자료의 분류직과 같은 업무들이 조사되었다.

**한** 편,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보면 '책을 대 출해 주고 정리하는 사서가 아니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들에게 거둬나라'는 최근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글(2002.8.2)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사서들은 인터넷과 전국 단위의 도서관 네트워크 및 국제적인 도서관 정보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을 정보홍수에서 건져줄 것이다'라고 주문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다 발전·활성화될 국내의 도서관의 미래를 위한 사서직/정보전문직의 정보검색에 대한 역할에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직 내에서 새로운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은, 문헌정보학 지식 외에 부가되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들로, 어학능력 다음으로 컴퓨터 능력을 꼽고 있으며, 웹 디자인에 대한 능력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미래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은, 이와 같이 사서직/정보전문직의 업무수행을 처리할 수 있는 주제 지식과 IT기술을 포함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e-mail : bykoo@swu.ac.kr